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경험 들여다보기

오 욱 선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김 성 봉[†]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한 방법인 근거이론에 의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 경험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 어머니 12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경험하는 중심현상은 ‘자녀양육의 갈등 및 교육적 위기’와 ‘부모정체성 혼란’으로 나타났다. 중심현상은 경제적 어려움, 낮은 한국어수준과 문화 차이, 주위의 편견과 무시와 같은 맥락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또한 가족결속력, 자녀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 지지체계 도움의 증재적 조건에 따라 자녀양육의 갈등과 위기, 부모역할 정체성 혼란의 강도가 완화되고 있었으며, 체념과 부정, 성찰과 극복의지, 자기역량강화와 같은 작용/상호작용에 따라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처해 나가고 있었다. 그 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한계를 수용하고 자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으며, 그런 과정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보다 능동적인 삶으로의 자리매김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기초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향후 다문화가정 연구의 방향에 몇 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 다문화가정 어머니, 자녀양육 경험, 근거이론

[†] 교신저자 : 김성봉,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Tel : ***-****-**** E-mail : edutopia@jejunu.ac.kr

최근 우리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뜨겁다. 2006년 정부는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의 전환’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제시하고 다문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 왔으며, 많은 학자들은 다문화를 주류 담론으로 다루고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정책과 담론은 대체로 다문화를 이질성이 아닌 다양성으로 수용하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이 처한 작금의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다문화가정의 53%(보건복지부, 2007)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살고 있고, 많은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부갈등이나 가정폭력을 호소하고(설동훈, 김운태, 김현미, 윤희식, 이해경, 임경택, 2005; 유형숙, 2005;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2006; 장은주, 2000), 시부모와의 갈등이나 가사노동 과중 등 성차별과 관련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김이선 외, 2006; 신승연, 2007). 또한 그 자녀들은 왕따를 비롯한 학교부적응과 언어 및 학업문제, 또래관계의 어려움(김갑성, 2006; 조영달, 윤희원, 박상철, 최영인, 2006; 오성배, 2005), 낮은 취학률과 진학률 (설동훈 외, 2005; 김범수, 2007; 유재신, 2008) 등과 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다문화화가정의 부정적 상황은 최근 우리사회에서의 다양한 다문화 담론, 정책,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한 현실을 반증한다 할 것이다. 실제 여러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그리고 이들 가족들을 온정주의 혹은 동화주의적 입장에서 ‘국민형성’의 대상으로만 간주할 뿐, 이들의 인권을 바탕으로 이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역량을 개발하

는 데 소홀해 왔다(김혜순, 2007; 오경석, 2009; 윤인진, 2007)고 하는데, 이는 그동안의 정부의 다문화정책이 문화 간 상호공존이라는 다문화주의의 본원적 개념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문화정책 모형은 차별배제(differential exclusion) 모형, 동화주의(assimilation) 모형,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모형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윤창국, 2009),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이민자들을 주류문화로 끌어들이기 위한 적응에 초점을 두는 동화주의 모형으로 보인다. 이주자들의 문화특수성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거나 유지하기 보다는 사회통합의 전제조건이 되는 문화습득 또는 재문화화에 초점을 두고(원숙연, 2008; 김희정, 2007) 우리 사회의 현안인 저출산 문제, 고령화현상, 힘들어진 농촌총각의 결혼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왔기 때문이다. 이런 접근은 다문화가정을 지금과 같은 부정적 현실에 위치시키는데 일조한 바 있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인회(2008)가 세계화 시대를 대비한다는 화려한 구호를 앞세워 예산과 노력을 낭비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문화성 관련 문제들을 냉정하고 정확한 눈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능력부터 길러야 한다는 지적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염미경(201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은 부계혈통과 성별분업에 기반한 가족을 유지해야만 하는 한국 남성의 필요와 자신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결혼이주를 선택하는 외국 여성의 동기가 맞아 떨어져 성립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에게 자녀양육은 결혼과 동시에 한국사회 적응의 어려움과 맞물려 이루어지며 남편의 가부장적인 가치관으로 인해 혼자의 몫으로 주어지고 있

는 게 현실이므로(조미영, 배지희, 2011), 경제 활동을 생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가부장적인 사고는 결국 아내문화 수용을 낮춤으로써 다문화가정 어머니로 하여금 결혼 만족과 삶의 만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성현란, 2011). 특히 한국사회가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보다는 어머니의 역할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결국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교육을 전담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양육환경에 대해 고통을 호소하는데(인봉숙, 2002), 이런 점은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자신의 고유문화에 대한 배려를 받지 못하거나 자녀양육을 포함한 자신의 역할에 대한 괴리감을 경험함으로써 또 다른 억압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다문화 담론이 우리 사회의 한 주류로 자리 잡기까지에는 그간의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그 중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녀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인봉숙, 20002; 김갑성, 2006; 조영달, 윤희원, 박상철, 2006; 한건수, 2006; 권구영, 박근우, 2007; 오만석, 2011),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김도희, 2008; 서홍란, 김기연, 김양호, 2008),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모 경험(송미경, 지승희, 2007; 윤명숙, 이해경, 2011),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 지원 및 복지(조미영, 배지희, 2010; 신승연, 2007)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이 연구들은 대체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 실태 조사나 양적인 변인 조작적 접근을 통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갈등, 적응, 만족도, 스트레스, 삶의 질 등의 문제나 그 자녀의 따돌림, 학교부적응, 낮은 취학률과 진학률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다문화가정의 부모역할과 부모자녀관계,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금명자 외, 2006; 김갑성, 2006).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매우 부정적인 현실에 처해 있으며 따라서 이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모종의 연민이나 시혜의 대상임을 시사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문제를 다룬 몇몇 연구들을 보면,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언어적응과 가부장적 문화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우울, 불안, 위축 등의 심리적 증상을 나타내며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그 결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곽금주, 2008; 송미경, 지승희, 2007). 아동에게 있어 어머니는 아동의 성장발달에 광범위한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성격, 태도, 가치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인데(김은경, 2010),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경험하는 서로 다른 부모들의 언어체계와 양육방식으로 인한 문화부적응이나 타자로부터의 소외, 차별대우 등과 같은 불평등 문제(하밍타잉, 2005)는 성장과정에서 정서적 혼란이나 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신혜정, 2007). 이런 아이들이 성장해 사회로 진출했을 때 예상되는 사회적 문제는 어렵지 않게 예측된다. 결국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제는 단지 어머니나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직면하고 있는 지금의 암울한 현실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공존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탐구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최근에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일상적인 삶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한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들(양승민, 연문희, 2009; 임현숙, 2009; 송미경, 지승희, 2007; 구차순, 2007)은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주체적인 요구를 수렴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자녀양육과 관련된 맥락적이고 심층적인 문제에 주목하게 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한국사회 적응과 갈등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선택의 주체로서 개척하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김민정, 유명기, 이해경, 정기선(2006)의 연구는,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의 딜레마적인 상황에서도 수동적인 입장이 아닌 주체적인 입장에서 변화를 도모하려고 애쓰는 과정을 통해 그들의 잠재된 역량을 발견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양승민, 연문희(2009)는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스트레스 요인과 반응에 관한 질적인 접근을 통해 능동적 선택의 주체이자 적극적 행위자로서의 결혼이민여성들의 특성은 이들이 다문화시대 인적 네트워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들의 부정적 현실과 그에 상응하는 연민이나 시혜를 ‘베푸다’는 기존의 온정주의적 접근에 시사하는 바 적지 않아 보인다. 이들을 단지 사회적 약자로 보고 모종의 시혜를 베푸는 동정적, 자선적 접근은 다문화가정의 기형적 구조를 잠시 가리는 효과가 있겠지만 문제해결의 근본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접근은 자칫 체제 순응적인 개량주의에 머무름으로써 사회경제적 불평등 체제가 빚어내는 문제들을 임시변통의 치료를 통해 약화시킴으로써 그 체제의 근본 문제를 은폐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체제에 순응하도록 하는 ‘체제유지의 시녀’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김성봉, 2004a, 2004b; 박정하, 2001).

어떤 사회적 현상이나 사태는 양적으로만은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질적으로 꼼꼼히 들여다보았을 때 더 잘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그동안의 다문화가정 연구가 양적인 연구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은 한 면을 봄으로써 다른 한 면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는 여기에 문제의식을 갖고 질적인 연구방법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삶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한다. 여기에 인용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양육경험은 각각 개별적인 입장과 위치에 따른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거시적이고 양적인 접근방식이 간과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현실을 좀 더 입체적이고 맥락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결혼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자녀양육과 관련된 삶을 어떻게 형성해 가고 있는지를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그간의 양적인 접근과는 다른 각도에서 그들이 처한 현실을 이해함으로써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다문화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나 집단이 경험하는 의미와 현상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접근보다 질적인 연구가 더 적합하며(Strauss & Corbin, 1998), 특히 근거이론은 개인들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근거해서 연구참여자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접근법(조홍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2010)으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적 자료로부터 개념을 형성하고 개발하고 수정·통합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은 자녀양육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대처해나가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경험을 들여다보

고 이를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으로 분석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기초해 향후 다문화연구와 관련한 몇 가지의 논의를 해보려고 한다.

방 법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2010년 10월 J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를 구해 국적과 거주지역을 감안하여 선정한 12명의 외국인 어머니이다. 이들 모두는 결혼생활 7년 이상인 자료,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 그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자료 수집절차는 2010년 11월 1일~12월 30일까지 연구참여자 12명에 대해 개인별 2회씩 총 24회의 심층면담으로 이루어졌다. 심층면담은 참여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그들의 행동을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에 대한 심층적 정보와 이해를 획득하기 위한 연구방법(김영천, 2010)이라고 할 수 있다. 심층면담 실시 전, 본 연구자는 2010년 8월 10일에서 9월 25일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다문화가정 어머니들과의 1, 2차 인터뷰과정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고, 풍부하고 다양한 자녀양육경험을 포착하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n=12)

연구 참여자	나이	국적	직업	학력	결혼 형태	결혼 기간	남편		자녀
							나이	직업	
01	38	중국	주부	고졸	중매	12년	51	농업	아들(12)딸(7)
02	40	일본	주부	고졸	중매	12년	45	차량 운행	아들(12)아들(8)
03	35	태국	식당 시간제	고졸	중매	10년	46	무직	아들(11) 아들(4)아들(1)
04	32	베트남	식당 종업원	고졸	중매	11년	44	오토바이 정비	딸(11)아들(7)
05	33	몽골	통역사	고졸	연애	7년	45	회사원	딸(6)딸(3)
06	36	베트남	주부	고졸	중매	7년	45	농업	아들(8)
07	39	필리핀	주부	고졸	중매	11년	49	차량 운행	딸(11)아들(9)
08	42	중국	주부	고졸	연애	9년	43	회사원	딸(9), 딸(8)
09	38	필리핀	관광업	고졸	중매	11년	46	회사원	아들(12)딸(8)
10	30	베트남	유치원도우미	고졸	중매	8년	45	상업	아들(8)딸(3)
11	32	베트남	가사 도우미	고졸	중매	9년	47	농업	아들(8)딸(3)/ 전처 딸(16)딸(14)
12	37	태국	주부	고졸	중매	11년	57	무직	딸(12) 아들(8)

기 위해서는 6~7년 이상의 결혼연차와 다양한 국적이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 그에 해당하는 연구참여자를 목적 표집하였다.

참여자 선정 후 2010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예비면담 시간을 통해 연구자와 다문화가정 어머니와의 일대일 관계형성의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와의 친밀감과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고, 본 연구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함으로써 연구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었다. 면담시간은 각 연구참여자마다 대략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면담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이야기하도록 격려하고 관심있게 경청하며, 연구자가 답을 유도하거나 암시를 주지 않기 위해 개방적이며 비구조적인 질문 형태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적어 놓은 면담일지, 서술기록을 활용하였다. 심층면담에 앞서, 연구참여자가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면담을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연구참여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나 자료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면담내용에 대한 필자는 연구보조자를 활용하며, 자료 활용은 익명으로 한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분석방법

연구참여자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사한 면담내용에 대한 자료분석은, Strauss와 Corbin (1998)의 근거이론 방법론에 근거하여 개방코

딩, 축코딩, 선택코딩으로 이루어졌다. 개방코딩은 자료에 대한 개념화 및 범주화하는 과정과 범주에 대한 속성과 차원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서로 유사하거나 의미상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사고나 사건들에 대해 작용/상호작용을 하위범주로 묶은 후 이 하위범주의 공통속성을 추상화하여 하나의 범주를 생성해낸다(Strauss & Corbin, 1998). 축코딩은 중심현상과 관련 있거나 중심현상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코딩 범주를 통찰할 수 있도록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이며, 개방코딩에서 분해되었던 자료를 재조합하여 하위범주들과 연결시키는 행위이다. 본 연구의 축코딩에서는 그림 1의 패러다임 모형에 의한 맥락적 분석을 통해 자녀양육경험의 현상을 둘러싼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의 구조를 밝혔으며, 자녀양육 경험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역동적으로 전개되는지에 대해 파악하였다. 선택코딩은 핵심범주를 선택하는 과정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핵심범주와 다른 범주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결한 후 이러한 관계를 확인하고 수정 또는 보완하는 절차를 통해 ‘수용과 변화모색’, ‘자녀양육 경험을 통한 능동적인 삶으로의 자리매김’이 핵심범주로 선택되었다. 핵심범주는 모든 주요범주가 그것과 관련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자료에 자주 나타나야 하고, 범주를 연결시킴으로서 발전하게 되는 설명은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Strauss & Corbin, 1998)것으로, 본 연구의 핵심범주인 ‘수용과 변화모색’과 ‘자녀양육 경험을 통한 능동적인 삶으로의 자리매김’은 대부분의 범주들과 일관성있게 관련되어 나타나는 중심주제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자료분석 과정에서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박사 1인과 전문가 2명과의 속

의의 과정을 통해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하는 전 과정에 걸쳐 다문화가정 지원 실무자와 다문화교육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조언을 요청함으로써 연구자의 선이해에 따른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결 과

이상의 방법론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개념을 명명하고, 개념들을 범주화시키고,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발달시켜나가는 과정에서 88개의 개념, 28개의 하위범주, 15개의 최종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중심현상은 자녀양육의 갈등 및 교육적 위기, 부모정체성 혼란이었다.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도록 이끄는 사건이나 일들로 구성되며, ‘왜 그 현상이 발생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결정된 국제결혼’과 ‘애정없는 결혼’이 중심현상인 ‘자녀양육의 갈등 및 교육적 위기’와 ‘부모정체성 혼란’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조건으로 분석되었으며, 하위범주는 잘살고 싶다는 기대감, 새로운 세상에 대한 모험적 결단, 배우자에 대한 정보 부족, 2세 계획이나 결혼준비 부족, 불안정한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으로 분석되었다.

막연한 기대감에서 결정된 국제결혼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철저한 계획 하에 국제결혼을 했다고보다는 잘 사는 나라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희망이 결혼의 간접적 동기였으며, 자국에서의 가난과 취업난, 그리고 부모의 권유가 결혼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어 한국이라는 낯선 세상에 대한 모험을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먼저 한국 온 사촌 언니가 소개해서 잘 살고 싶은 마음에 여기 온 거죠. 필리핀에선 일 없고 주변에도 한국 아니더라도 떠나는 친구들 많아요(07 필리핀)./한국에 오는 거, 쉽지만은 않았죠. 어머니가 한국가면 잘 산다고 하고, 나도 새로운 곳에 대한 꿈이 있어서. 여기 오면 잘 살 줄 알았죠. 남편이 잘 사는 줄 알고, 돈 걱정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마음대로 전화도 못하게 하고, 달라고 하면 돈 없대요. 이야기가 달랐어요. 돈도 있고 회사 다닌다고 했는데, 와보니 일 없고, 한국에선 아는 사람 없고, 갈 데 없어서 전화라도 해야 하는데 못하게 해서 떠나고만 싶었죠. 아이가 생겼고, 솔직히 고민 많이 됐어요. 어떻게 하다보니 애 낳고, 이젠 그냥 사는 거죠(12 태국).

애정없는 결혼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결혼정보업체의 주선이나 먼저 한국에 온 지인들의 소개로 결혼한 경우가 많았으며, 결혼 전 만남의 횟수와 기간이 비교적 짧고 급하게 결혼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서로에 대한 정보나 애정이 부족한 상태로 관계형성이나 친밀감 등의 정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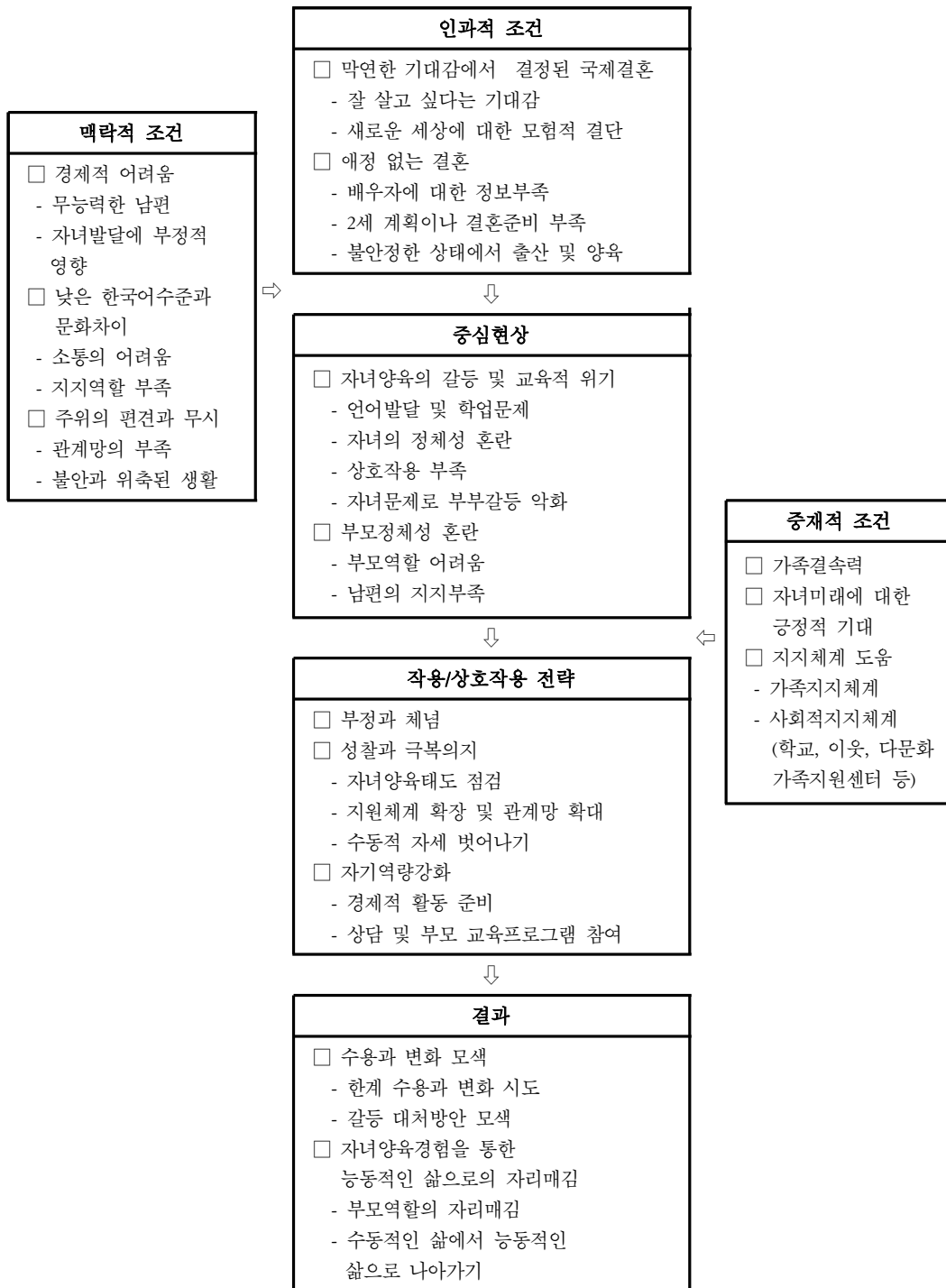


그림 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경험 패러다임 모형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했으며, 2세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육아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 및 자녀양육을 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소개받고 남편 두 번 만나서 결혼했으니 좋아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나이가 40살인 줄 알고 있었죠. 한국에서 살다보니 거짓말인 거예요, 45살이라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나랑 스물 살 차이냐고. 나이가 많다고, 아프다고 일도 잘 못해요. 속았다고 생각하니까 화날 때 많았죠. 자주 싸우고 남편이 날 때리니까 미진이 낳고 안 살려고 뛰쳐나갔죠, 쉼터에서 일주일 정도 지냈는데 어떻게 알고 야기 안고 왔어요. 야기 보니까 어쩔 수 없었죠(12 태국)./소개받았을 때 남편이 결혼한 적 있고 아이가 있다고 들었죠, 나도 나이 어리지 않아서 인정하고 결혼했어요. 전부인 아이가 두 명인데, 처음에 나를 가정부로 대했어요. “아줌마, 이거 해, 저거 해”하고 함부로 하는데 나도 기분이 좋지 않죠, 근데 남편, 시어머니도 같아요, 못알아듣는 줄 알고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가정부로 온 건가?'하는 생각 했어요(11 베트남).

중심현상

중심현상은 현재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서, 참여자가 일련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조절되고 다루어지는 중심생각이나 사건이다(Str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중심현상은 ‘자녀양육의 갈등 및 교육적 위기’와 ‘부

모정체성 혼란’으로 분석되었으며, 하위 범주는 언어발달 및 학업문제, 자녀의 정체성 혼란, 상호작용 부족, 자녀문제에 따른 부부갈등 악화, 부모역할의 어려움, 남편의 지지부족으로 분석되었다.

자녀양육의 갈등 및 교육적 위기

연구참여자들은 ‘너네 나라로 꺼져, 이 동남아’라고 친구들이 어머니 국적을 갖고 놀리거나 가학적 호명을 하는 등 학교나 동네친구로부터 놀림이나 비웃음, 왕따 경험을 당하는 자녀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하였다. 또한 자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고 미안함과 죄책감 등의 감정적인 반응이 우선되고 있었으며, 자녀들은 억압된 감정을 가정에서 어머니에게 화를 내거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하는 등 학령기로 접어들면서 자녀양육을 둘러싼 갈등의 강도가 점점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동시에 부부간 마찰이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물어봐도 대답 못하니까. “우리말도 못하고, 명칭이 엄마, 가버려.” 나에게 짜증 많이 내. 명확인 내가 창피하다고 해. 이유를 물어보지 못하고 나도 화부터 내니까 명확이하고 싸우게 돼. 남편이 도와주면 좋은데, 오히려 얘기하면 내탓이고 내가 바보라서 그렇다고 하니까 남편과도 또 싸우게 되고, 애가 커가니까 요즘은 안 싸우는 날이 없어(01 중국)./애가 “엄마는 왜 한국 아빠와 결혼했어? 아빠가 엄마하고 결혼 안했으면 나는 다문화 아니잖아, 다문화 듣기 싫어, 학교가기 싫어, 왜 태국사람

이랑 결혼하지, 왜 한국에 왔어?” 하는데, 아무 말 못하고 눈물만 났어요. 내가 잘못한 거 많은 건가? 하루하루 힘들어요(03 태국)./ “엄마는 짜증나, 아빠는 짜질해, 난, 뭐야, 한국 사람도 아니고, 베트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빠가 때렸죠. 아이에게 제대로 말 못하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너네 나라로 썩 꺼져! 이 동남아” 남자 애들이 자주 놀린다고 했어요. 차라리 베트남 가버릴까(04 베트남)./커가니까 다 들어줄 수 없잖아요. 내가 말하면 나에게 욕같은 거 막 해요. ‘애가 날 엄마로 생각하나?’ 안 되겠다 생각해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그런 말 들어도 싸다, 이년아. 니가 그 모양이난 애가 저렇지. 애 하나도 키우지 못하는 거, 꺼져”하는데, 화가 휴! 나도 남편에게 욕하고 싸우고. 씻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엄마는 맞는지...(09 필리핀).

자녀교육과 관련해서 연구참여자 01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에 점점 어려워져서 컴퓨터에만 매달리는 자녀가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연결되는 현실을 토로하였다. 연구참여자 07 역시 받아쓰기에서 빵점 맞을 때마다 웃는 친구들에게 “다 없애버릴 거야”라고 자녀의 입에서 무의식 중에 흘러나오는 걸 들을 때면 학교에서의 부정적 경험이 자녀에게 심한 압박과 분노로 억압되고 있는 상황을 걱정하였다. 더욱이 자신의 출신배경과 다른 한국사회의 생소한 교육적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교육문화의 차이가 자신의 무능력함으로 여겨지고, 그런 점은 학령기 자녀의 교육적 어려움으로 직결되는 것으로 자책하거나 의기소침해지는 상황, 그런 자신에 대해 자녀의 무시와 외면

등을 언급함으로써 학령기 자녀와의 갈등과 교육적 위기상황임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수학도 문장으로 된 거 어려워, 내가 도와주지 못하잖아. 아빠도 귀찮다고 대답 안 해주니까 더 답답해. 작년부터 점수가 거의 안나와. 애가 너무 기죽었는데, 불쌍하지. 그래서 컴퓨터해도 그냥 적당히 하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야. 이젠 컴퓨터만 해. 학교 안가고. 자꾸 안가(01 중국)./“공부, 공부! 엄마도 모르는 거 많잖아? 엄마도 대답 못 하는데 내가 어떻게 잘해?” “맨날 웃어, 받아쓰기 하면 깔깔 웃잖아. 다 죽여버리고 싶어” 둘째가 2학년인데, 요즘 다 죽인다는 소릴 자주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구나 생각 들어서 달래주려고 하면 오히려 날 바보취급하니까, 속상할 때 많죠. 애가 저렇게 못하는 거 나 때문인 거 같고, 여기 환경 잘 모르니까 내가 멍청이가 된 거 같은 느낌, 힘들죠 (07 필리핀)./어린이집 다닐 때 선생님이 걱정하는 말 했어요. 말 느리고 발음도 분명하지 못하다고. 남편에게 말해도 크면 괜찮다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젠 심해져서 아침마다 그것 때문인지 학교가기 싫다고 해서 아이랑 싸워요. 스트레스 많이 받죠. 학교 보내지 말까 생각들기도 하고. 불안하고 걱정되요(09 필리핀).

부모정체성 혼란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자녀의 문제행동이나 낮은 학습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남편의 일방적인 태도와 지지부족, 한국사회의 높은 교육열에 대한 부담, 정보부족 등이 자신의

출신배경과 맞물려 한국에서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신념이나 가치관의 혼돈 등 부모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인과적 조건에서 나타났던 2세에 대한 준비부족이나 불안정한 상태에서의 출산과 양육이 현재 한국에서의 불분명한 자신의 위치와 역할 한계, 자녀양육을 둘러싼 어려움과 직면하게 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다. 이런 혼란은 자녀가 학령기에 접어들고 자녀의 문제 행동 표출이 보다 강력해지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

학년 올라갈수록 거짓말도 많이 하고 숙제 잘 안 해. 저번엔 체험학습비 달라고 해서 6000원 췌는데 pc방 가서 다 써버렸대요. 남편이 얼굴이랑 머털 때리니까 사실 말했는데 불쌍한 거 같고. 5학년 되면서 학교가기 싫다고 동생에게 자주 말한대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어떻게 해야 하나? 잘 키우고 싶는데 캄캄하고. 정우도 내가 답답한지 말 잘 안해요(02 일본)/좋은 엄마라는 거 한 번도 생각 못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벌써 학교가는구나.’ 아이가 말 더듬어서, 걱정이었는데 점점 학교가기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바보 같고, 남편은 나 때문이라는데 그말 들으면 화나고 싸우게 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아이에게 도움 안되는구나 생각하면 죽을 거 같고. 한국 엄마들은 학원 데려다주고, 공부 같이 하잖아요? 태국에선 상상 못해요. 한국에서 엄마 되는 거 어렵고, 이런 줄 몰랐죠(03 태국)/난 한국사람 아닌데, 한국엄마 되려고 하니까 더 힘들었어요. 말도 잘 못

하고 피부도, 얼굴도 다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한국엄마 되요? 남편은 아이랑 놀아주지도 않고, 책 같은 거 읽어주지도 않으면서 나는 여기 엄마들처럼 다 알아서 하길 바라죠(07 필리핀).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작용/상호작용 통해 반응해야 하는 어떤 현상 또는 현상의 속성을 만들어내는 특수한 조건의 집합으로, 어떤 현상에 대응하고 반응하기 위해 취해지는 구체적인 조건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으로서 경제적 어려움, 낮은 한국어수준과 문화 차이, 주위의 편견과 무시로 분석되었다.

경제적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에 의하면 남편의 뚜렷하지 못한 일과 그로 인한 경제적인 불안정은 자녀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경제적 안정에 대한 기대심리가 국제결혼의 결정적 동기로 작용하였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결혼 후의 남편의 무능력함과 경제적 빈곤은 안정적인 결혼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을 상실하게 만들었으며, 연구참여자 09가 ‘돈 없어서 언어치료실에 보낼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처럼 자녀양육에 필요한 생활비와 자녀교육비의 부족 등은 자녀발달과 학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는 부부갈등과 부모정체성혼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기저귀값, 분유 비싸. 남편은 허리 아프다고 아무 것도 안 해요. 돈 생기면 소주

마시고. 셋째 아직 밥 못 먹어요, 일가면 남편이 집에서 야기 봐요. 교육시키려면 한국에선 돈 많이 들어, 커가는 거 보면 걱정부터 되요(03 태국)/둘째가 네 살 때 말 잘 못한다는 소리 듣고, 발음도 이상하고 선생님이 말해도, 언어치료실에 보내고 싶었는데 돈 없어서 못 보냈어요. 내마음 남편은 잘 몰라요. 아이 발음 이상해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돈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는데 엄마라고 할 수 있나(09 필리핀)/남편 일없어, 돈 벌어오지 않아 시어머니가 돈 조금 줘요. 이거저거 사면 부족하고, 돈 많이 쓴다고 시어머니가 말하면 화나요. 잘 산다고 해서 걱정 안 하고 살 줄 알았는데, 거짓말한 거야. 속은 거 아니까 화나고 가겠다고 자주 싸우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10 베트남).

낮은 한국어수준과 문화차이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이나 자녀양육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한국어 구사능력은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자녀가 학령기로 접어들면서 자녀와의 소통이나 자녀교육과 관련된 한국어이해 수준이 부족하고 자신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상이함으로서 성장하고 있는 자녀와의 관계를 힘들게 하거나 그로 인한 자녀양육의 갈등과 부모정체성 혼란이라는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빠가 공부 도와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해. 학원 못 다니고, 쓰는 거, 어려워. 수학도 문장으로 된 거 어려워. 역사 내가 몰라요. 가끔 내가 모르는 말 있잖아, 대답

못 하면 “그것도 몰라, 바보 엄마야?” 나 바보 맞나.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떠나고 싶죠(03 태국)/언제부터 숙제 안 해. 학년 올라가니까 어려워. 공부를 도와줄 수 없으니까 내가 더 답답하죠. 예전엔 안 그랬는데 애도 답답한지, 날보고 ‘엄마, 답답해, 말이 안돼’ 이런 말 자주 해요. 속상하죠. 커갈수록 왠지 불안하고 걱정되죠. 베트남에선 학교에서 공부하면 되는데, 여긴 집에서도 공부만 한다고 하는데, 아이 키우는 것도 한국은 어려운 거 같아요(04 베트남).

주위의 편견과 무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남편이나 가까운 가족을 제외한 친밀하고 다양한 관계형성의 부족, 고립된 생활 등으로 정서적 불안과 우울,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서 겪는 편견과 곱지 않은 시선 등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한국사회에서의 적응과정과 그런 틈바구니에서 힘들 수밖에 없었던 자녀양육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12년 동안 동네 사람들 모르고 살았어, 남편이 중국말 하는 거 싫어하니까. 남편 때문에, 아이 이야기도 밖에서 못하게 해. 아이 문제가 생겨서 답답해도 얘기하지 못했는데, 더 싫은 건 동네 사람들, 동서들도 날 이상하게 봐.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 그 후로 사람 안 만나고 우울증까지 생겼어(01 중국)/동서가 아이에게 “까맣다고 놀리거나 친구들이 뭐라고 안하니?” 물어보는데, 다음부터 시집모임에 가지 않았어요(04 베트남)/어딜 가면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어려서부터 나랑만

지내서 겁이 많아요. 발표도 안하고, 친구도 없다고 선생님이 걱정하는 소릴 했는데, 이리다 우리 아이 정말 바보가 되겠다(07 필리핀).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중심현상의 강도를 완화시키거나 변화를 주는 조건으로서 맥락 내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가족결속력, 자녀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 지지체계의 도움이 중재적 조건으로, 지지체계 도움에 대한 하위범주는 가족지지 체계, 사회적지지 체계로 분석되었다.

가족결속력

연구참여자들의 자녀양육 갈등은 고통과 혼란의 순간이면서 동시에 자녀와의 애착을 확인하고 가족결속력을 다지는 기회가 되고 있었다. 즉 자녀문제로 발생하는 부부간의 잦은 마찰이 부부갈등의 위험한 요소로 작용될 때도 있지만, 그러한 갈등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이나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으며, 소원했던 시대식구와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타인처럼 느껴졌던 시부모나 시집식구들을 아이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려고 함으로써 가족결속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몇 번이나 일본 가버렸죠. 외롭고 소외감 같은 거 많고 너무 힘들었어요. 민수, 현수 낳고 키우고 한국에서 잘 살아야겠다

생각들고. 힘들어도 개네들 보면 살 수 있었어요. 요즘처럼 힘들 거 생각 못했는데. 민수가 말썽 피우고 학교 가기 싫어하잖아요. 고모가 걱정되는 말 해주고, 아이들 데려가서 책 사주고, 옷 사주고 하더라구요. 가족이 이래서 좋구나 생각했어요(02 일본)/아이들 커가니까 남편과 더 싸우게 돼요. 돈 때문 싸우고, 아이 문제 말하면 또 싸우고. 다 나 때문이래요. 일 때문에 남편이 힘든거 알아요. 짜증내고, 싸우고. 술 먹고 자는 거 보면 불쌍하게 보이고. 더 잘해줘야지 생각해요. 미울 때 많지만 아이들 아빠잖아요(04 베트남)/‘날 좋아하지 않는구나’ 시집식구들 점점 피했어요. 시집에 가면 애들도 따로 노는 거 보니까 불쌍하죠. 동서네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랑 친한데 우리 아이들은 안 그러니까. ‘아, 이건 아니다’ 생각들었죠. 내가 바뀌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한동안 자주 갔죠. 아이들 보니까 시어머니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랑 예전보다 많이 친해졌어요(07 필리핀).

자녀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부모정체성의 혼란이나 자녀에 대한 적절한 지지와 도움부족으로 심리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지탱하게 하는 것은 자녀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진학하거나 친구관계, 학교생활 적응 등에서 현재의 힘들이가 개선되어 성장한 후에도 자녀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적극적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등 자녀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표현

하였다.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좀 크면 나아져야죠. 공부 잘해서 대학도 가고, 돈 많이 벌어서 잘 살 거예요. 이젠 내가 일도 하고 한국말도 더 잘하니까 괜찮아지겠죠. 아이에게 관심 더 갖고, 공부도 더 신경 쓰고 그러면 괜찮아지겠죠(03 태국)./엄마, 아빠는 이렇게 살지만 우리 아이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하잖아요. 한국에선 오로지 공부, 공부 잘해야 잘 산다고 하니까 더 잘 시켜야죠. 준혁이가 좋아하는 일, 컴퓨터만 지는 일하며 잘 살았으면(06 베트남)./수연이가 짜증내고 힘든 거 다 엄마, 아빠 때문이지 수연이 때문 아니에요. 친구랑 사이 좋게 지내고, 공부도 더 잘 할 수 있는데...지금은 힘들지만 잘 할 거예요. 대학은 여기보다 필리핀 가서 한대요. 원하면 그렇게 할 거고, 수연이가 되고 싶은 선생님 되게 할 거예요.(07 필리핀)./선생님도 도와준다고 했고 내가 더 노력하고 돈 벌면 우리 다빈, 수빈이 공부 잘해서 중국하고 한국 왔다갔다하는 거, 외교관 시킬 거예요(08 중국).

지지체계 도움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양육의 갈등을 경험하고 위기적 상황들을 대처해나가면서 점차로 한국사회에서의 지지체계 도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제로 도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만났던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가정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경험 공유와 심리적 지지들은 큰 힘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학교의 선생님이나 센터의 상담원, 가정방문 지도사의 격려와 긍정

적 피드백은 자녀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답답해도 얘기할 곳 없고, 잠 안 오고, 센터에 전화했죠. 같은 사람 있는 줄 몰랐는데, 이야기하고 비슷하다는 걸 알고 힘이 됐죠(06 베트남)./다른 건 다 참 참을 수 있는데 아이문제는 그냥 참으면 안 되겠다, 도움을 받아야겠다, 학교 선생님이 상담사를 소개시켜줬어요. 일주일 한 번 상담 먼저 받고 아이도 받고. 남편도 이해 못하는데 선생님은 이해해주고, 아이문제 잘 들어주고 필요한 거 같이 노력해주니까 좋고 주변사람들 다시 보게 되었죠(07 필리핀)./전처 애들 때문에 화나서 집 나가면 남편이 나를 찾더니, 나중엔 찾지 않고 문 잠그기까지 했어요. 밖에서 잔 적 있고, 어린 아이들은 찾아 울고, 나만 힘든 거 같아 화나고, 이리다 내가 병나겠다 생각들었어. 아이는 공부도 싫다, 숙제도 싫다, 학교도 싫다. 친구도 없는가봐요. 걱정되서 센터에 연락했더니 가정지도사가 왔어요. 공부 도와주고 친절하니까 좋아해요(11 베트남).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현상을 다루고 조절하여 수행하고 반응하는데 쓰이는 것으로, 현상에 대처하거나 현상을 다루기 위해 취해지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서 현상을 ‘어떤 방식’으로 다듬어 가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자녀양육 갈등 및 교육적 위기’, ‘부모정체성 혼란’의 중심현상을 다루고 대처하기 위한 작

용/상호작용 전략으로 부정과 체념, 성찰과 극복의지, 자기역량강화가 분석되었으며, 그 하위범주는 자녀양육태도 점검, 지원체계 확장 및 관계망 확대, 수동적 자세 벗어나기, 경제 활동 준비, 상담 및 부모교육프로그램 참여로 나타났다.

부정과 체념

학령기 자녀와의 갈등상황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은 ‘미안해서 눈치보게 되고, 그냥 참아야 되는 숨막히는 생활’이라고 표현하였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체념 섞인 절망과 막막함의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였으며, 심리적 위안이었던 자녀의 예기치 못했던 갈등상황은 건디기 힘든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갈등에 대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부정하거나 거부하거나 혹은 체념하는 등의 심리적 기제를 사용하여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명환이 때문에 살았잖아? 이젠 꺼지라는 말 자주 해.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제 어떻게 해? 나에게 이리는 거 믿을 수 없어. 특하면 학교 안 가는 거. 남편은 내가 다 알아서 하라는데, 명환인 내말 듣지 않아. 명환이 저렇게 된 거 남편은 나 때문이라는데(01 중국)/자는 줄 알았는데 새벽 두시까지 컴퓨터하고 있었어요. 못 일어나서 지난 주는 학교 두 번 못 갔어요. 간줄 알았는데 pc방에 간거예요. 거짓말한 거 때문에 때렸는데, 속상했어요, 학교 안 다니고 일본간대요. 학교 안다니면 어떡해? 불안해서 잠을 못자겠어요(02 일본)/피

부 때문에 나가지 않고, 목욕탕에 들어가면 안 나와요. 내가 말하면 짜려봐요. 내가 싫대요. 그래도 ‘참자, 참자’ 나 때문에 저리는 거 아니까 미안하고 눈치보게 되요. 딸 눈치를 보게 될 줄 몰랐죠. 답답하고 숨막히죠(04 베트남)/오늘도 학교 안 간다고 해서 아빠랑 싸웠어. 달래주려는데 “엄만 더 답답해, 말도 안되잖아” 나를 꼭 밀치는 거예요. 넘어져서, ‘이럴 수가, 이럴려고 참고 살았나?’(09 필리핀).

성찰과 극복의지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양육갈등을 경험하면서 심리, 정서적인 불안과 좌절을 겪지만 결국 포기할 수 없는 책임감과 극복의지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동안의 자녀양육 태도를 점검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욕구가 갈등극복에 대한 의지를 갖게 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즉 자녀 문제행동의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만의 걸림돌이었던 회피성향,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한국어 실력 다지기, 남편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시집식구들에게 먼저 다가가기 등 자녀양육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한국에 오래 살아도 남편이나 시집식구들이 남 같아요. 아직도 날 싫어한다고 생각했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 같아요. 한 번은 “엄마, 한국사람 맞아?” 대답못했어요. 요즘은 준혁이랑 말하다보면 내가 많이 바뀌어야겠구나, 시집식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야겠구나(06 베트남)/처음엔 잘 모르니까 남편만 믿었어요, 할 수 있는 거 없는 줄 알고. 근데 가만히 있다

간 우리 아이, 나, 다 바보가 되겠다, 아일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남편은 2년 동안 일 안하고, 돈 벌어오지 못했어요. 안되겠다, 아이때문에라도 내가 일해야겠다 생각하고, 컴퓨터 배우고 일하기 시작했어요(07 필리핀)/말하면 이상하다고 자꾸 웃어서 더 말 안하게 되고 사람들 피하고 필리핀 친구만 만나고 지냈어요. 아이가 커가는데 한국말 잘 못해, 공부 못해, 받아쓰기 빵점 맞고 아, 안되겠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국말 열심히 공부해야겠다(09 필리핀).

자기역량강화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양육갈등과 부모역할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고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개인적인 역량강화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에 따라 현재의 빈곤과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자녀의 교육비지원과 일을 통한 자신감 획득의 차원으로 경제적 활동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이웃과의 관계망 확대나 상담이나 부모교육 참여를 통해 자녀양육갈등의 주체적 해결과 한국사회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었다.

식당아줌마들이 잘 해줘서 한국 와서 행복한 거 처음인 거 같아요. 돈 버니까 좋아요. 학원 보내고, 아이문제도 아줌마들이 도와줘서 나아지고 있고, 일하니까 우울 없어지고 이젠 사람들 봐도 내가 먼저 아는 척하고 인사하죠. 이젠 좋은 엄마 되고 싶고, 싫었던 남편도 조금씩 이해되요(03 태국)/특하면 친구랑 싸우고, 남편에게 매 맞는 거 볼 때마다 애가 불쌍하고 미칠

거 같았죠. ‘이렇게 살면 아이에게 내가 도움이 안되겠구나’ 생각했죠. 나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한국어프로그램 빠지지 않고 상담도 받고, 일하는 거 못할 거 같았는데, 이젠 돈벌어야지 생각해요(06 베트남)/이젠 한국말 잘해요. 운전 배워 아이들과 시내가고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어요.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엔 나가지 못해 더 힘들었던 거 같아요. 간혀 있었죠. 그렇게 10년을 집에서만 살았고, 돈 때문에 힘들어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못했는데, 이젠 남편보다 더 큰 소리쳐요. 학원비라도 벌고,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09 필리핀).

결과

결과는 어떤 현상에 대처하거나 그 현상을 다루기 위해 취해진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자녀양육의 갈등 및 교육적 위기’, ‘부모정체성 혼란’이라는 중심현상을 다루기 위해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는 ‘수용과 변화 모색’, ‘자녀양육경험을 통한 능동적인 삶으로의 자리매김’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하위범주는 한계 수용과 변화 시도, 갈등 대처방안 모색, 부모역할의 자리매김, 수동적인 삶에서 능동적인 삶으로 나아가기였다.

수용과 변화 모색

연구참여자 12가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라고 한 것처럼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결혼 후의 불만족스런 경험과 한국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했던 소극적인 삶을 진술하였다.

점차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고 대인관계에서의 미온적인 성향, 나약하고 종속적이었던 이전의 태도와 역할을 수용하고 자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화를 감행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였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자녀문제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으며, 운전면허증 따기, 한국말 배우기, 한국음식 자주 해주기, 지원체계 활용하기,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기 등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시아머니가 바보며느리라고 무시하니까 시집에 가기 싫지. 남편은 동네사람들 만나는 거 싫어해 12년 동안 모르고 살았지. 요즘 명환이로 힘들잖아. 도와달라고 하고 싶은데 말할 데 없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명환이 은수 어리고. 이제 한국말 잘하고 운전면허증도 따고. 일하려고요(01 중국)/잘 살고 싶었는데. 한국사람 아니니까 한국엄마도 아닌데, 자꾸 한국엄마가 되려고 하니까. 더 힘들었어요. 말도 부족하고, 얼굴도 피부색도 다르잖아요? 이젠 내가 필리핀 출신 엄마라는 거 자신있게 말하고 살려고요(07 필리핀)/한국에 오면 잘 살줄 알았는데, 남편과 싸우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걸 알고 ‘여기 내가 있을 곳 아니다’ 생각했죠. 다 싫었어요. 얼마 전에 “엄마는 한국사람이야, 태국이야?” 물어봐도 대답 못했죠. 아이도 헛갈릴 수 밖에요. 친구들이 놀리니까 자주 싸우고 들어와요. 나 때문이라는 거 생각하면 미안하죠. 미안해서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떡볶이도 만들어주고, 남편이랑 싸우는 거 좀 참고(12태국).

자녀양육 경험을 통한 능동적인 삶으로의 자리매김

연구참여자들은 현재의 자녀양육갈등을 벼랑에 선 상황으로 비유할 만큼 절박함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상황에서 속수무책인 자신을 성찰하면서 그동안의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확인하게 되고, 변화에 대한 새로운 요구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었다. 즉 부모역할에 대한 점검과 반성, 경제적 활동의 가치와 중요성,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형성, 교육적 환경에 어울리겠다는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중심에는 자녀에 대한 애착이나 모성이 본능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예컨대 ‘아이문제 만큼은 참으면 안되겠다’처럼 자녀문제를 직면하여 극복해야 할 것으로 수용하고 대처방법을 탐색하고 행동적 실천의지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이전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던 자세와는 달라진 점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통해 주변인의 삶에서 보다 능동적인 삶으로의 자리매김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벼랑에 선 거 같은 거죠. 친구들이 다문화라서 같이 놀지 않는다는 말 들었을 때, 다른 건 다 참 참을 수 있는데 아이문제는 그냥 참으면 안 되겠다, 도움을 받아야겠다, 처음엔 남편만 믿었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줄 알고. 근데 이젠 내 아일 키우려면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알았어요. 돈도 필요하고, 아직 시간제 이긴 해도 일하는 게 정말 좋고 당당해져요.(03 태국)/이젠 내가 한국사람 다 됐구나 생각해요. 김치 없이 밥 못 먹고, 일하

면서 사람들 만나는 게 즐겁고, “우리 엄마, 통역사야” 자랑한다는데 기분 좋고 아 이에게도 잘하게 되요(05. 몽골)/내 발음이 이상하다고 자꾸 웃어서 내가 속상한 것만 생각했는데, 내가 바보가 돼 있더라구요. 준혁이도 말이 늦고, ‘준혁이를 위해서 한국말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구나 한국말 잘하는 엄마를 보여줘야지’. 다른 엄마들과 어울리는 모습 보여줘야지(06. 베트남)/엄마가 될 거라는 거 결혼 전에 생각 못했죠. 요즘은 미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나 때문에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죠. 그런 마음이 달라진 거죠. 여기 엄마들처럼 잘하고 싶어요. 두렵지만 더 노력해야죠. 미진이가 잘못하면 별도 주고, 잘하면 칭찬도 해주고요. 미진이랑 대화할 때 어렵지 않게 말 열심히 배울 거예요(12. 태국).

논 의

이상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경험을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으로 들여다본 결과, 경제적 어려움, 낮은 한국어수준과 문화차이, 주위의 편견과 무시의 맥락적 요인은 중심현상인 ‘자녀양육의 갈등 및 교육적 위기’와 ‘부모정체성 혼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가족결속력, 자녀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 지지체계 도움의 중재적 조건에 따라 중심현상의 강도를 완화시켜나가고, 부정과 체념, 성찰과 극복의지, 자기역량강화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중심현상에 대처하고 있었으며, 궁극적으로 이들은 한국에서의 자녀양육경험을 통해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

한 한계를 수용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면서 과거의 수동적 삶이 아닌 능동적, 주체적 삶으로 나아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더해 몇 가지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심현상인 자녀양육을 둘러싼 갈등 및 교육적 위기는 ‘대학지향 담론’이 매우 강한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문제이지만, 본 연구의 다문화 가정인 경우 그 보편성과는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다. 이들이 경험하는 중심현상에는 매우 열악한 경제적 상황, 외국인 어머니로서의 문화부적응 및 언어이해 수준의 문제, 주위의 편견과 무시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일반 한국 어머니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지만,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에게 생소한 한국의 교육적 환경, 교육적 열기에 맞춰 교육하는 것이 자녀양육의 갈등 원인이며(전만길, 2005), 다문화가정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열악함과 부모의 문화차이는 다문화가정의 아동양육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학령기 자녀의 학습에 요구되는 한글능력이 어머니가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서게 되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에 언어문제가 두드러진다(오성배, 2005)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학령기 자녀들의 문제행동 표출, 한국의 교육문화 적응에 대한 어려움과 그에 따른 자신의 부모역할 한계와 정서적 불안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 혼란은 설상가상으로 자녀들의 정체성 혼란과 뒤엉켜 자녀발달의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외국국적을 싫어하며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폭언을 하였다. 이

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머니의 외국인 국적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게 하며,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함에 따라 언어발달이 지체됨으로써 자기표현에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반대로 폭력적인 과잉행동장애를 보이는 등 정서장애를 보인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오성배, 2005; 조영달 외, 2006)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언어는 인간 생존 학습에 매우 중요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부호이므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발달 지체는 곧 한국사회에서의 지적·사회적 발달의 지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교육현장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약자의 등장을 어렵지 않게 예측하게 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과 그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교육 및 한국어신장을 위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동시에 동화주의 관점에서 한국어만을 강요하기 보다는 다문화가정의 장점을 살려 그들의 고유한 언어를 인정하여 두 가지 언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중언어정책(박상준, 2010)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들이 처한 복합적인 문제 중, 열악한 경제적 상황은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들 역시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른 모든 사회적 약자와 마찬가지로 사회·경제 정의의 측면에서 적절한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요구되지만(교육과학기술부, 2008; 오만석, 2011), 특히 문화부적응이나 편견과 무시의 문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대부분은 중요한 타자인 남편과 시댁식구를 위시한 주위의 편견과 무시로 그들이 본래 지니고 있던 문화를 자녀들의 발달단계에 맞춰 적절히 교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놓임으로

써 ‘부모역할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다. 문화가 인간의 행동을 보여주는 다양한 지도라면 정체성은 그 지도 속에서 정확한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Spencer, 1999)고 볼 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처한 이러한 혼란은 그들 스스로를 위축시키면서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아버지 대부분은 자녀문제의 원인을 부모의 공동 책임보다는 어머니의 양육문제에 귀인함으로써 부부간의 갈등 심화는 물론 다문화가정 어머니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문화가정 부부들에게 자녀양육의 문제는 문화 간 충돌이 강력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지점으로 부모의 적절한 양육방식이 지속되지 못할 경우 자녀는 정서적 어려움은 물론 정체성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McDermott & Fukunaga, 1977)는 점에서 심각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모가 자녀에게 민감하고 연령에 적절한 양육을 제공할 때 조화로운 부모-자녀관계가 형성되고 자녀는 부모를 비롯한 성인의 기대에 부합하려는 동기를 지닌다(Belsky, 1990). 이런 점에서 긴밀한 가족관계는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여 자녀의 성공적 적응의 보호요인이 될 수 있는데(Rumbaut, 1997), 본 연구의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자녀들에게 투영되는 것이 차단됨으로써 어머니로서 응당 해야 할 심리적 지지자로서의 한계를 보였으며 이는 어머니와 자녀 모두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낮은 부모역할 효능감이나 죄책감 등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여 자녀들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심리적 위축, 불안, 분노, 폭력 등의 부정적 정서와 행동을 표출하였던 것이다. 이들이 청소년과 성인으로 살아갈 미래를 고려한다면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수가 더욱 늘어날 미래를 전망해 본다면, 이런 문제를 방지하는 것은 사회문제로 직결될 것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적응이나 한국어교육과 같은 접근 외에 가족치료적 혹은 가족상담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자녀의 입장에서 그 처지를 공감하여 건전한 감정표출이나 표현의 방법을 도와줌으로써 갈등표출의 강도와 빈도를 최소화시키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것이 그 예일 것이다. 어머니를 위해서는 심리적 안정과 적응을 돕고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자녀의 욕구와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자녀성장에 따른 발달을 최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부모는 누구보다도 자녀의 요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Barnard & Martell, 1995). 이런 전문적 지원과 개입이 아쉬운 현실이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정체성 혼란에 일조하고 있는 남편의 문제와 관련해, 향후 국가적 차원의 다문화정책에는 양성 평등적인 입장에서 부부관계에 대한 역할 규정이나 재산관리, 가사 및 육아 등에 있어서 동등한 지위와 책임을 갖는 수평적 부부관계를 구축하는 등 다문화가정 아버지들을 위한 보다 특화된 개입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소중한 사회적 자산인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심리적 지지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자율성과 권한은 법적, 제도적으로 적극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역시 한국인으로

서 우리의 법으로 보호되고 있겠지만, 미숙한 언어 등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자칫 법보호망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으므로 일반인과는 다른 차별적 보호와 감독이 요구되는 것이다.

셋째, 가족결속력, 자녀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 지지체계 도움의 중재적 조건들은 중심현상의 강도를 완화시키고 있었으며, 부정과 체념, 성찰과 극복의지, 자기역량강화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자녀양육을 둘러싼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향후 다문화연구 방향에 시사하는 바 적지 않아 보인다. 다문화가정을 단지 온정과 연민, 교육과 상담이 대상이 아닌 문화적 주체(오경석, 2009)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연구과제와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해,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하는 ‘역량강화(empowerment)’ 연구와 같은 것이다. 지금의 척박한 환경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주변적 존재의 삶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게 사실이다. 이들 대부분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희망하지만 기술, 언어 등의 문제로 취업을 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이 우리 사회의 주체적 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 밀착된 다양한 지원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역량강화를 도와주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예컨대 이들에게 서비스 수혜자로서의 역할만을 기대하지 말고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 다른 다문화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및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자녀양육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역량강화와 지원체계 확대 및 자신감 등이 필요하다고 하

었다. 즉 나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용기가 필요하고 자녀양육을 보다 주체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경제적 활동이 절박하며, 자녀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과의 유대감 즉 지지체계가 필요함을 깨닫고 있었다. 이러한 깨달음은 자녀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보다 능동성을 증가하게 만들었으며, 자신의 역할 수행의 한계를 수용하고 현재의 위기적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새로운 경험과 도전에 직면하면서 한국 사회에 보다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지게 하였다. 이런 점은 결혼이주여성들의 부모됨의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세상과 소통하면서 몰랐던 것들을 배우게 되고 자신감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엄마로서의 자기자리를 찾아가게 됨을 통해 한국인으로 거듭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윤명숙, 이해경, 2011; 임현숙, 2009; 구차순, 2007)와 비슷한 맥락에 있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자녀양육경험을 통해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향후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 모색에 시사점이 있다. 즉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사회에 통합되도록 하는 제도, 직업, 정보화, 인권 교육의 확대 실시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능동적인 삶으로의 전환과 그들이 역량강화에 필요하다고 언급한 경제적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넷째, 중재적 조건과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서 나타난 결과인 ‘수용과 변화 모색’, 그리고 ‘자녀양육경험을 통한 능동적인 삶으로의 자리매김’은 다른 모든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

교화하는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이자 본 연구의 핵심범주로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그간의 일반적인 암울한 시각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서로에 대한 정보와 탐색, 그리고 이해의 과정 없이 서로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배우자를 만났다. 결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경제적 어려움과 소외된 삶에 의해 무너졌고, 서로 다름으로 인해 갈등과 혼란을 경험해야 했다. 또한 이들의 자녀양육과정은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시작해서 갈등과 위기, 혼란의 연속이었고 주위의 편견과 남편의 지지부족으로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이문제 만큼은 참을 수 없다, 내가 바뀌어야겠다’ 라고 하여 지원체제의 도움을 구하고 일자리를 찾아나서는 등 그동안 스스로 소외되거나 혹은 타자에 의해 배제되었던 관계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거나 자녀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을 모색하려 했다. 특히 이런 노력은 자녀의 문제행동이 보다 강력하게 표출되는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강력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사회에서 유일한 혈연관계인 자녀는 한국사회에 살아갈 이유를 확인시켜주는 존재(김이선 외, 2006)임을 깨닫고 종속적이었던 자신의 이전의 태도와 역할을 수용하고 자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화를 감행하는 삶의 원동력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들의 자녀양육경험은 궁극적으로 이들을 한국 사회에 적응시키도록 하는 심리·사회적 기제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들이 경험하는 자녀양육 과정은 따라서 단순히 고통의 순간이라기보다는 그동안의 삶의 궤도를 움직여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거나 내적인 탄력성을 발휘하여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조망케 하고 있다. 이러한 조망은 임현숙(2009)과 송미경, 지승희(2007)의 연구에서 자녀의 탄생이 한국에서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자녀양육의 긍정적 경험을 보고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하지만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교육적 위기와 부모정체성 혼란을 통한 부모역할 한계를 수용하고 자녀문제 해결을 위한 변화 모색과 일을 통한 능동적인 삶으로의 전환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점이며, 이는 이들을 단지 사회적 약자로 보고 시혜를 베푸는 동정적·자선적 접근의 기존 다문화정책 연구에 대한 성찰과 향후 다문화가정 연구방향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보여준 사회적응의 심리·사회적 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연구, 예컨대, 자녀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행동에 대해 회피나 포기가 아닌 직면하여 극복해야 할 것이라는 해석을 격려하고,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하는 이유들을 발견하도록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개발이나 교육상담적 개입 전략 개발과 같은 연구과제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문제행동 표출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담론이 팽배한 현시점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만의 갈등과 혼란이 아닌 사회 공동의 문제이며 나아가 자녀들이 청소년으로 성장했을 때 그 갈등의 강도와 빈도는 더욱 강력한 사회문제화 될 개연성에 비추어 볼 때, 동화주의적 접근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적 관점을 반영하는 새로운 다문화학교교육과정 개발 노력 또한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근거이론 패러다임

에 기초해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자녀양육경험을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여다봄으로써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고, 이와 관련한 몇 가지의 논의를 통해 향후 다문화가정 연구의 방향에 단초를 제공하였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는 다음과 같은 본 연구의 한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질적 연구는 속성상 일반화에 큰 관심을 보이지는 않지만(김영천, 2010; 조홍식 외 공역, 2007),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표집방법인 목적표집(purposeful sampling)으로 연구참여자들을 선정한 것은 양적 연구의 비확률적 표집에 따른 대표성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일반화 가능성을 제약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결혼해서 자녀양육 과정을 회고하는 형식의 심층면접이었지만, 각 시기별로 그들이 겪고 있는 자녀양육경험을 다루었다기보다는 현시점에서 두드러진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전문가들과의 면담내용 필사본에 대한 숙의를 통해 연구의 타당도를 확보하려고는 했지만, 연구참여자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의 부족으로 이들에게 연구결과를 확인시키지 못함으로써 예상될 수 있는 타당도의 문제를 고려할 수 있으며, 특히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에 기초해 현상을 들여다보는 데 치중한 나머지 연구결과를 이론으로까지 치밀하게 생성해내지 못했음은 추후연구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8). 다문화가정 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방안.
 교육인적자원부 (2006).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 지원 대책.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곽금주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과 적응: 다문화가정에서의 부모-자녀간의 상호 패턴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26.
- 구차순 (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 이론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구영, 박근우 (2007).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연구, 14, 187-219.
- 금명자, 이영선, 김수리, 손재환, 이현숙 (2006). 다문화가정 청소년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갑성 (2006).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도희 (2008). 결혼이민여성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문화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민정, 유명기, 이혜경, 정기선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인류학, 39(1), 159-193.
- 김범수 (2007). 일본의 다문화공생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연구, 86-112.
- 김성봉 (2004a). 봉사학습과 교육과정 탐구의 확장. 교육과정연구, 22(3), 229-249.
- 김성봉 (2004b). 미국의 봉사학습이 한국대학 교육에 주는 시사점. 한국교육 31(3), 287-305.
- 김영천 (2010).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문음사.
- 김은경 (2010). 다문화가정 모-자녀의 긍정심리성 향 증진을 위한 긍정심리프로그램 개발.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2006).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인희 (2008). 한국사회의 다문화성 고찰. 다문화시대의 아동권리와 상호이해 증진: 변화의 주역으로서의 정부와 민간의 역할.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다문화전문가 포럼 자료집, 9-28.
- 김혜순 (2007). 서론,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모색: 세계화시대 이민의 보편성과 한국의 특수성. 한국사회학회.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동북아시아 위원회 용역과제 07-7), 1-34.
- 김희정 (2007).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한울아카데미.
- 박상준 (2010).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 교육과학사.
- 박정하 (2001). 사회봉사의 철학적 기초. 한국철학사상연구. 시대와 철학. 12(1). 107-275.
- 서홍란, 김기연, 김양호 (2008). 베트남 여성 결혼이민자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3), 121-143.
-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홍식, 이혜경, 임경택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 지원정책 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 성현란 (2011). 남편의 성역할, 고정관념, 다문화감수성 및 아내문화수용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결혼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7(2), 219-239.
- 송미경, 지승희 (2007).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총서) 130, 1-89.
- 신승연 (2007).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 신혜정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승민, 연문희 (2009).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스트레스 요인과 반응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1(4), 943-966.
- 염미경 (2010). 제주가족관계의 특성과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생활. *다문화사회*,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지역사회 통합의 방향*. 국제학술세미나 자료집. 65-91.
- 오경석 (2009). 한국적 다문화주의, 또 하나의 새마을운동. *LE MONDE diplomatique* 2009년 12월호.
- 오만석 (2011).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의 현실과 과제. *다문화교육연구*. 4(1), 43-77.
- 오성배 (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2(3), 61-83.
- 원숙연 (2008).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42(3), 20-49.
- 유재신 (2008).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의 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명숙, 이해경 (2011).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부모됨을 통한 적응경험. *한국가족복지학회지*. 32(6), 103-135.
- 윤인진 (2007).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한국사회학회*.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동북아시아대위원회 용역과제 07-7)*, 251-291.
- 윤창국 (2009). 다문화사회 담론 및 정책분석을 통해 본 평생교육의 과제. *평생교육학연구*. 15(4), 245-274.
- 윤형숙 (2005).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8(2), 299-339.
- 인봉숙 (2002). 한일국제결혼가정 2세의 한국생활 적응 실태조사 연구: 천안시 거주 통일교인 가정 중심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현숙 (2009). 결혼이주 여성의 임신, 출산을 통한 삶의 전환 체험.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영주 (2000). 문화적 차이와 인권: 동아시아 맥락에서. *철학연구*. 2000, 여름호, 155-179.
- 전만길 (2005). 외국인주부 한국실태조사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달, 윤희원, 박상철, 최영인 (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하밍타잉 (2005). 1992년 이후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 베트남 여성의 적응을 중심으로.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Barnard, K. & Martell, L. (1995). Mothering. In M.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3rd ed. pp.3-2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approach. *Child Development*, 55, 85-96.
- Creswell, J. W. (2007). 질적연구방법론 [*Qualitative Inquiry and Reserch Design* 2E].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역). 서울: 학지사.
- McDermott, J. F., & Fukunaga, C. (1977). Intercultural family interacrion patterns. In

- W. Teng, J. F. McDermott, & T. W. Marezki (Eds), *Adjustment in Intercultural marriag*. pp. 81-92. Honolulu: University Press of Hawaii.
- Ladd, G. W., & Troop-Gordon, W. (2003). The role of chronic peer difficulties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problems. *Child Development*, 74(5), 1344-1367.
- Spenser, M. B. (1999).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 on school adjustment: The application of an identity- focused cultural ecological perspective. *Educational Psychologist*, 34, 43-57.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 Rumbaut, R. G. (1997). The ties that bind. In A. Booth, A. Crouter, & Landale(Eds), *Immigration and the family: Research and policy on U. S. immigrant*.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ion.
- 논문투고일 : 2012. 3. 6.
1차 심사일 : 2012. 3. 15.
2차 심사일 : 2012. 5. 3.
게재확정일 : 2012. 5. 23.

Looking into Child-rearing Experience of Moth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rough the Grounded Theory Paradigm Model

Oh, Ok Sun

Dept.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

Kim, Sung Bong

Dept.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

This study was aimed at looking into and understanding child-rearing experience of moth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one of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this, twelve moth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ere selected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them and then analyzed through the open coding, axial coding and selective coding. The analysis suggested that main phenomena moth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experienced are the conflict of child-rearing and educational crisis, and the confused identity of parenting. These main phenomena had much to do with contextual factors such as economic hardship, lower level of the Korean language, cultural differences, prejudices and ignorance. The severeness of conflict and crisis of child-rearing and the intensity of identity confusion for parenting depended on arbitral conditions such as family bonds, positive expectation for the future of their children, and the help of supportive systems. Mothers were dealing with difficulties of child-rearing through action and interaction of resignation and denial, introspection and the intention to overcome difficulties, and the capacity building. As a result, moth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cknowledged that there is a limit to their position and roles they can play and tried to change in order to resolve problems related to their children, positioning themselves for more active lives in Korean society. Through discuss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this study can help better understand child-rearing experience of moth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suggest several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es on multicultural families.

Key words : moth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aring experience, grounded theory